

'97 제2검정소 우수 농장상 수상한 보광축산

지난 2월 5일 제2검정소에서 97년도 우수 농장상을 수상한 보광축산(대표 : 김성찬, 전화 (064) 48-3403/4)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 13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3월부터 종돈업을 개시하여, 지난 97년도에 제2검정소로 출품을 처음 시작하여 챔피언 6회를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종돈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규모보다는 내실을 다져 양돈농가에 '우수한' 종돈을 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광축산 김성찬 사장.

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종돈선발은 농장 내에서 자가검정을 수입돈을 계통별로 선별하여 동복자돈에 대하여 월 50여두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의 강건성과 외모, 곡격의 발달정도, 부모계통의 성적을 집중적으로 체크하여 선발하며, 전 돈군에 대하여 우수성을 검증받

사양관리가 쉬운 강건한 돼지생산에 초점 맞춰

보광축산 김성찬 사장은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79년부터 양돈을 시작하였으며, 이곳에서 질병에 의해 피해를 크게 본 후 84년부터 고향인 제주도로 들어가 청정지역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농장을 지금까지 위생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보광축산은 GGP 200두, GP 350두의 종돈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품종은 듀록과 요크셔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GP농장은 GP농장과 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방역 및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분만돈사는 무창돈사를 이용한 올-인, 올-아웃 사양방식으로 첨단시설과 과학화된 사양방법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종돈을 생산하는데 심

기 위하여 검정소에 출품한다고 한다.

보광축산은 깨끗한 종돈을 생산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질병없는 깨끗한 농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일반 농가에서 기르기 쉬운 즉, 사양관리가 쉬운 강건한 돼지를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당증체량에 종돈선발 초점을 많이 맞춘다고 한다.

출품한지 1년만에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김사장은 "종돈장을 운영하기에는 제주도가 육지보다는 무척 불리한 여건이지만, 우선 종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회사를 잘 선택하여 심혈을 기울여 종돈을 선택한 것이 중요하였으며, 본인이 외국에 직접 나가서 선발한 것이 지역적인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규모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올해에는 최우수 농장상에 꼭 도전하겠다"라고 강조한다. <취재 : 이병석> **養豚**